|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시즌4 제2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4 제2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⑤	2	18	④	2	35	④	2	35	④	2
2	③	3	19	①	2	36	③	3	36	②	3
3	①	2	20	③	2	37	④	2	37	①	2
4	①	2	21	④	3	38	②	2	38	⑤	2
5	④	2	22	②	2	39	①	2	39	④	2
6	⑤	2	23	⑤	3	40	②	2	40	③	2
7	⑤	2	24	①	2	41	②	2	41	③	2
8	②	3	25	③	2	42	④	2	42	③	3
9	⑤	2	26	③	2	43	⑤	2	43	②	2
10	②	2	27	②	2	44	③	3	44	④	2
11	①	2	28	④	2	45	①	2	45	⑤	2
12	③	2	29	⑤	2						
13	④	3	30	③	3						
14	①	2	31	⑤	2						
15	②	3	32	⑤	2						
16	④	2	33	①	2						
17	③	2	34	③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4 제2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의 물음에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읽기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정책의 목적 중 하나이다. 그것이 자율적인 책 선택을 중시하는 이유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더구나 어떤 책이 주어지든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그 이유라고 보기는 힘들다.

[오답풀이] ① 책을 스스로 선택해야 읽기 동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그만큼 몰입하여 읽게 된다. ② 지식이나 교훈을 더 많이 얻는 것은 읽기 효능감이 높아진 결과이다. 책 선택은 읽기 효능감을 높인다. ③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스스로 책을 선택하는 것은 강화적 기능에 의해 행동의 역량, 즉 읽기의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 낸다. ④ 독서는 문제 해결의 과정인데, 책 선택부터 이 과정의 일환이다. 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 보라는 취지이다.

2. [출제의도] <보기>의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책 선택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열거되어 있는 방법들은 지문에 소개된 자기 결정성 이론의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의 세부 내용과 연결된다.

[정답풀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책을 선택하는 것은 외재적 동기의 개인적 중요성이나 가치의 자각에 해당한다. 이 요인들은 처벌이나 보상 등에 비해 동기의 기능을 더 강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관심이나 즐거움 등 내재적 동기에 비해서는 약하다. 즉,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좋아하는 주제여서 책을 선택했을 때가 동기의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다.

[오답풀이] ① 책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은 읽기 동기를 강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이럴 때에 읽기를 보다 활기차게 만드는 발생적 기능이 작용할 것이다. ② 읽기 난이도를 고려하여 책을 선택하는 것은 읽기 효능감을 높인다. 자기 결정성 이론은 효능감을 높인다는 점을 인정한 후 그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④ 좋아하는 장르인지를 고려하는 것은 관심과 같은 내재적 동기에 따라 책을 고르는 것이다. 내재적 동기는 책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⑤ 책을 선택할 때 과제의 목적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기도 하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스스로 선택하여 동기가 형성되면 적합한 방법으로 이끌어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지시적 기능이 나타난다.

3. [출제의도] 학생의 독서 기록장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자율적인 책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책이 선택될 수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청소년 수준에 맞는 권장 도서 목록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를 돕는 독서 목록을 추천하고 있지도 않다. ③ 활기찬 독서 활동을 다짐하고 있지는 않다. ④ 자율적인 책 선택이 지닌 한계를 지적한 것은 맞다. 다만 평생 독자 양성을 위한 독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새로운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 9] 인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6쪽

4. [출제의도] 지문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드레츠케와 클라인의 시도를 소개하고 있다. (나)는 피론주의를 설명하고 이의 극복과 관련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다만 그 극복이 쉽지 않음을, 오히려 피론주의가 토대주의와 정합주의에 대한 강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②(가)에는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에 대한 드레츠케와 클라인의 극복 방안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철학사적 배경은 소개되고 있지 않다. (나)에는 피론주의가 극복되는 상황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③(나)에서는 피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으며 그 극복 방법 역시 제안되지 않았다. 토대주의와 정합주의가 지닌 한계는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극복 방법도 제안되고 있지 않다. ④(가)에서는 특정한 철학적 입장에서 파생된 현대 이론들이 소개되고 있지도 않으며, 지식론이 범주적으로 유형화되고 있지도 않다. 지식론을 토대주의와 정합주의로 나누고 있는 것은 (나)이다. ⑤(가)에서는 특정한 철학적 입장이 변화되어 온 과정이나 철학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피론주의에 따르면 토대주의는 자명한 믿음이 다른 믿음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한계를 가진다. 피론주의에 따르면 토대주의자가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믿음도 실은 착각의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가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는 일상에서 지식으로 간주되는 믿음들이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라는 의미의 진짜 지식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② 드레츠케는 '전능한 악마 논증'의 전제인 CP2를 부정하고, 클라인은 '전능한 악마 논증'의 다른 전제인 CP1을 부정함으로써 논증을 반박한다. ③ 만약 피론주의자가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자처럼 "우리가 결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면 그는 그 주장을 하나의 지식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피론주의는 이 주장을 포함한 모든 믿음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취한다. ⑤ 피론주의에 따르면 정합주의는 동일한 정합성을 갖지만 서로 경쟁하는 믿음 체계들 중 어느 것이 더 옳은 믿음 체계인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한다.

6. [출제의도] 특정 주장을 펼치는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클라인에 따르면 CP1이 참이려면 "명제 x가 거짓이었더라면, 우리는 x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조건이 '정당화된 믿음'의 필요조건이어야 한다. 그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된 믿음으로 간주될 수 있는 믿음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 조건이 '정당화된 믿음'의 필요조건이 아님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클라인에 따르면 CP1은 참일 수 없고 거짓임에 틀림없다.

[오답풀이] ①CP1이 요구하는 정당화된 믿음의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정당화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지만 실제로 정당화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② 내가 속는 상황에 있지 않다는 믿음이 정당화된 믿음이 아니라는 주장은 바로 CP1이다. ③CP1은 "명제 x가 거짓이었더라면, 우리는 x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믿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다. CP1은 내가 속는 상황에 있지 않다는 믿음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CP1이 어떤 진술인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CP1이 거짓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④ 가상의 상황에서 "그 물이 미지근해졌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거짓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자체는 CP1이 거짓인 이유로 불충분하다. "가상의 상황에서 '그 물이 미지근해졌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CP1이 요구하는 과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정당화된 믿음의 사례이다."라고 이 사례와 CP1 간의 논리적 관계를 명시한다면 CP1이 거짓인 이유에 대한 설명일 수 있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설명된 특정 방식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체계를 이루는 믿음들이 서로의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정합주의를 볼 때에는 '순환 추리의 방식'이 정합주의에 대한 비판의 근거일 수 있다. 그런데 체계의 정합성이 각 믿음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곧 정합주의의 방식이라 본다면, '순환 추리의 방식'이 아니라 '가설에 기초한 방식'이 정합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엠피리쿠스에 따르면 '세 논증 방식'은 믿음의 정당화 방식들 모두를 망라한 것이다. ② 엠피리쿠스에 따르면 '가설에 기초한 방식'은 가설에 불과한 믿음을 그 자체로 정당화된 믿음으로 간주하여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다. ③'가설에 기초한 방식'은 토대주의의 정당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 자체로 정당화된 믿음이 다른 믿음들의 최종 근거라는 토대주의의 주장에 대해 그 '최종 근거'라는 것이 단지 가설일 뿐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④ '무한 후퇴에 기초한 방식'과 '순환 추리의 방식'은 모두 정당화 연결을 통한 정당화의 과정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방식이다. 직선적으로 무한이 이어지는지, 순환을 이루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8.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통 속의 뇌 논증'이 소개되고 있다. '통 속의 뇌 논증'은 데카르트의 '전능한 악마 논증'과 비교할 때 인식자 S가 믿는 명제 P가 명제 H로 바뀌었을 뿐, 다른 모든 면에서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답풀이] 드레츠케에 따르면 H에 대한 증거는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참인지가 문제시될 때에 이 명제에 대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즉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H에 대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드레츠케는 우리가 정당화된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를 거부한다.

[오답풀이] ① 데카르트적 회의주의자는 컴퓨터에 의해 속는 상황, 즉 내가 통 속의 뇌인 상황과 실제로 H가 참이고 내가 그렇게 믿는 상황을 구분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③ 클라인은 CP2가 참이라고 본다. 즉 클라인에 따르면 H에 대한 믿음이 적절한 증거에 의해 정당화된다면, H 자체가 내가 속고 있지 않다는 믿음을 정당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화하므로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라는 믿음이 정당화된다. 또한 그는 데카르트적 회의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H에 대한 믿음이 적절한 증거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그는 H에 대한 믿음이 적절한 증거에 의해 정당화되고, H 자체는 내가 통 속의 뇌일 것이라는 의심을 제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의심이 제거된다고 결론 내릴 것이다. ④ 클라인은 CP1이 거짓이라고 본다. 즉 "'나는 통 속의 뇌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본다. CP1이 참이려면 과도한 조건을 '정당화된 믿음'의 필요조건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⑤ 피론주의에 따르면 모든 믿음에 대한 정당화 방식은 불완전한 정당화 방식인 세 가지 방식들 중 하나이다. 즉 H에 대한 믿음이 그 자체로 정당화된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설에 기초한 방식'일 뿐이며, 그 믿음이 지식임을 보이는 다른 어떤 논증도 역시 세 방식 중 하나에 의한 것일 뿐이다.

9.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부여'는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줌.'의 뜻이다.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은 '부각'의 뜻이다.

[10 ~ 13] 기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85쪽

1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서 하나의 특정 객체나 사건에 관한 정보가 담기는 것은 '튜플'에 해당하는 각 행이지, 각 열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은 그 테이블의 생성 시점에서 확정된다. ③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들을 적절하게 분할하는데, 이를 통해 데이터의 반복 저장을 방지한다. 그 덕분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여러 행의 값들을 갱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적절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락처와 같은 동일한 값들이 반복 저장되기 쉬워진다. ④ 조인 연산은 모든 테이블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기본 키'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속성들로 정형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형식의 데이터든 저장이 가능해서 역동적인 실세계를 반영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다.

11. [출제의도] 지문의 특정 대상들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은 각 테이블을 구성하는 속성에 따라 동일한 양식의 튜플을 저장하는 것이지, 모든 테이블들에서 동일한 양식의 튜플을 저장하는 것은 아니다. 테이블마다 속성에 따라 튜플의 양식이 달라진다.

[오답풀이] ②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은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행과 열의 관계에 제약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서 데이터베이스처럼 고유 대상마다 문서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은 효율적인 갱신을 위해 데이터를 여러 테이블에 분할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테이블을 참조해야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인 연산은 시스템이 느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에서는 정보를 얻을 때 조인 연산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은 ㉠과 달리 정해진 속성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만큼, 새로운 속성의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저장할 수 있다. 가령 문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고객마다 속성을 달리하여 저장할 수 있다. ⑤ 데이터베이스는 실세계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해 둔 것으로, 실세계의 변화에 따른 갱신 역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과 ㉡ 모두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12.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특정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문서 데이터베이스는 실세계의 정보가 변경되어 갱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번의 갱신이면 충분하다. 해당되는 고유 대상의 문서를 갱신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는 넷째 문단에서 특정 고객이 새 품목을 구입했을 때 해당 고객의 문서가 갱신된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한 번의 갱신으로 충분한 것은 테이블들을 분할하여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서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보를 한 번에 갱신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즉 문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효율적인 갱신과 추가가 가능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저장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자료의 중복 저장을 테이블의 분할을 통해 방지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다. 또한 갱신과 추가의 효율성은 그 방식의 문제이므로 저장 공간과 무관하다. ② 속성들에 관한 정보를 담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④ 조인 연산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얻을 때에 거치는 것으로, 데이터의 갱신이나 추가와는 관련이 없다. ⑤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문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고유 대상의 문서를 갱신한다. 새로운 고유 대상에 대해서만 새 문서를 추가할 것이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A는 지문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X를 문서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한 결과이다. 고유 대상인 각 고객마다 문서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B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A가 갱신된 결과이다. 123번 고객, 124번 고객이 새로운 품목을 구매하였고, 새로운 고객인 c2d번 고객의 문서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답풀이] X에서는 123번 고객이 맨 처음에 구입한 품목과 수량이 사과 3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시간순으로 튜플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매출 테이블>에서 해당 고객의 첫 번째 튜플을 확인하면 된다. 반면 B에서는 해당 고객의 문서를 불러오더라도 사건의 발생 시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단점은 마지막 문단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문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건의 발생 시점 등을 알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기본 키를 이용하여 조인 연산을 수행하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② A와 같은 문서 데이터베이스는 실세계의 고유 대상인 고객마다 문서를 생성한다. 123번 고객의 문서와 124번 고객의 문서는 별개의 문서이지, 하나의 문서가 아니다. ③ 문서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문서마다 각기 다른 정보를 저장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여기서 연락처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다음번의 갱신에서 이를 반드시 추가할 필요는 없다. ⑤ B에서는 c2d번 고객의 문서가 생성될 수 있지만 X에서는 해당 고객의 튜플이 추가될 수 없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각 속성의 형식에 맞는 튜플만이 저장되기 때문이다. X에서는 고객 번호가 123, 124와 같은 숫자 형식이 아닌 경우에는 저장될 수 없는 것이다.

[14 ~ 17] 사회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51쪽

1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기업에 많이 노출되면 기업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가격 차별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가격 차별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의 지불 의사에 근접하는 가격이 형성되므로 소비자 잉여는 줄어든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가 기업에 덜 노출될수록 소비자 잉여가 커지기 쉽다.

[오답풀이] ② 개별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금액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액수가 소비자 잉여에 포함된다. ③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보다 생산량이 더 적은 지점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설령 독점 기업이 1급 가격 차별을 시행한다고 해도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야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은 아니다. ④ 최대 지불 의사를 반영하여 개별 소비자마다 가격을 매기는 1급 가격 차별을 시행하더라도 최대 지불 의사가 동일한 여러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동일 상품에 대해 같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다. ⑤ 가격 차별은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동일 상품에 대한 생산 비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동일 상품에 대한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이다.

15.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가격 차별을 하지 않던 기업이 가격 차별을 시행하려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가격 차별의 두 가지 방안 중에 A안은 각 구간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의사 간 동질성이 높아서 기업 입장에서 개별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를 더 반영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A안과 B안은 모두 3급 가격 차별에 해당하지만 결과적으로 A안은 B안에 비해 1급 가격 차별에 좀 더 가까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풀이] A안은 B안에 비해 각 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의사가 서로 비슷해서 상대적으로 개별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의사에 보다 가깝게 가격 책정이 이루어진다. 갑은 생산자 잉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구간별 차별화된 가격을 정한다. 그리고 구간별 최대 지불 의사에 최대한 근접하는 가격으로 판매할 때 생산자 잉여를 최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 B안의 경우처럼 각 구간에 속한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의사의 동질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각기 다른 최대 지불 의사를 모두 충족하는 가격 책정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므로, 책정된 가격이 최대 지불 의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사보다 높아서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회원이 많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그래서 A안을 택하는 경우보다 B안을 택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더 적을 것이다. 한편 갑은 가격 차별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과 차별 비용을 비교하는 것일 뿐, 차별 비용의 액수에 따라 가격 책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격 차별에 따른 서비스 이용 회원 수는 각 안의 차별 비용과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① A안의 경우에 B안보다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의사에 더 근접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그 결과 A안은 B안에 비해 최대 지불 의사 금액에서 실제 지불액을 뺀 값들의 합인 소비자 잉여가 더 줄어든다. 또한 차별 비용은 별도로 산정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별 비용의 크기가 소비자 잉여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③ A안의 경우에 B안보다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 의사에 더 근접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안을 선택한 갑은 기존의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더 많이 전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를 더 늘려서 생산자 잉여를 더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갑의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A안이 B안보다 더 크다. 또한 차별 비용은 별도로 산정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별 비용의 크기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④ 독점 기업인 갑이 A안을 비롯한 가격 차별 정책을 택할 유인이 있는 경우는,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이 차별 비용보다 더 큰 경우이다.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서 사회적 잉여가 차별 비용보다 크다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 가격 차별의 유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⑤ 1급 가격 차별일 경우에 한해 기존의 소비자 잉여가 모두 생산자 잉여로 전환된다. 그러나 A안이든 B안이든 3급 가격 차별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소비자 잉여의 일부분만 생산자 잉여로 전환된다.

1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대상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1급 가격 차별을 시행하면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고 소비자 잉여와 사중 손실은 0이 된다. 외부 비용(㉡)을 차별 비용(㉠)으로 내부화하는 정책이 도입되지 못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 차별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외부 비용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격 차별 정책의 시행과 그로 인한 생산자 잉여의 극대화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기술 발달로 ㉠이 감소하면 독점 기업은 가격 차별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고 그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정보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인 ㉡이 더 증가할 수 있다. ② 사회적 후생의 증가 여부는 사회적 잉여의 증가분과 가격 차별에 따른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 가격 차별에 따른 비용보다 사회적 잉여의 증가분이 크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증가한 것이므로 사회적 후생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가격 차별에 따른 비용에 ㉠뿐만 아니라 ㉡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사회적 잉여의 증가분이 ㉠과 ㉡의 합보다 크다면 사회적 후생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③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와 피해 구제 제도가 없다면 기업은 가격 차별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을 배제하고 ㉠만 고려할 것이다. ⑤ 가격 차별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용은 ㉠에 해당하며,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그러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소비자들의 불안이나 무력감과 더불어 ㉡에 해당한다.

17.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단어를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과(賦課)되다'는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가 매겨져 부담하게 되다.'의 의미이므로, ⓒ의 '돌아가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8 ~ 21] 현대소설

➔ **연계 지문 : 이호철, 「탈향」 (수능특강 286쪽)**

18.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는 서술자 '나'가 자신의 눈에 비친 두찬의 행동을 서술하고 있는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까지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이를 인상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오답풀이] ⑤ [A]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상 없이 서술자 '나'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백적 진술이라 할 수 있지만, '나'는 자신의 눈에 비친 두찬의 모습을 진술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생각 등 자신의 내면에 대해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19.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중공군이 밀려온다는 바람에 무턱대고 배 위에 올라타긴 했으나, 도시 막막하던 것이어서'라는 서술과, '배 칸에서 하루 저녁을 지나, 이튿날 아침에는 부산 거리에 부리어졌다.'라는 서술을 종합해 볼 때, '나'가 중공군의 침략을 피해 부산행 배를 탔다는 사실과 그런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두찬은 두찬대로, 광석은 광석대로 나머지 셋을 짐처럼 여겼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얽매여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는 이들의 이런 기미에 대해 '그들을 탓할 수만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토박이 반원은 '어디? 미군 부대나?'라며 광석이 미군 부대에 취직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잘됐구먼.'이라고 하고 있을 뿐 시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0.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하원은 아직 광석이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문 후반부의, '하원이는 아직 광석이가 죽은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서술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은 광석이 죽은 것을 모른 채, 말라붙은 피를 닦아 내어 광석의 얼굴을 깨끗하게 해 주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부산으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갈수록 아득했다는 것은,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②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참고하면, 두찬은 다친 광석을 버려두고 어디론가 가 버린 상태다. (광석이 '두찬인 날 오해했는갑드라, 오해. 두찬이에게 할 말이 있는데'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광석과 두찬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날 일터로 나온 두찬이 광석의 행방을 묻는 토박이 반원에게 '좋은 데 갔'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두찬은 이미 광석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의사를 부르기 위해 병원에 가거나 하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은 심하게 다친 광석을 안심시키려는 '나'의 거짓말이라 판단할 수 있다. ④ ㉣은 광석이 죽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데, 두찬은 화차간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광석의 죽음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는 짐작에서 나온 말이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와 하원은 두찬이 '저녁놀이 싸느랗게 비낀 좁은 틈바구니 샛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를 잡거나 부르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았다. 따라서 '나'와 하원이 사라진 두찬을 찾아 헤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와 하원, 두찬, 광석은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이십 촌 안팎'의 먼 촌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서로 아접 조카 집안끼리'임을 의식하며 '우리 넷이 떨어지는 날은 죽는 날'이라고 했다는 것은, <보기>를 참고하면, 타향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사 가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뭉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광석이 '나'에게 '너들 날 벌어먹이간? 진짜 벌어먹이간?(너희들이 나를 벌어먹일 테냐? 진짜 벌어먹일 테냐?)'이라고 묻는 것은, '나'나 하원, 두찬이 팔 한쪽을 잃은 자신을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같은 고향에서 피난 온 가족 같은 이들에게조차 버림받는다면 낯선 타향 땅에서 생존 자체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석의 이 말은, 불의의 사고로 불구의 몸이 되자 타향에서의 생존 문제 앞에서 불안해하는 인물의 내면을 보여 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⑤ '나'는 죽은 광석을 앞에 두고 '나 자신'과 '하원이 꼴'에 대해 서러워하는데, 지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 서러움은 전쟁 때문에 타지에 나와 기막힌 꼴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서러움이다. 따라서 지문의 마지막 장면은 '나'가 느끼는 실향민으로서의 비애를 보여 주는 대목이라 이해할 수 있다.

[22 ~ 27] 고전시가－수필 통합

➔ **연계 지문 : 조우인, 「자도사」 (수능특강 59쪽)**

➔ **이신의, 「단가육장」 | 이식, 「왜송설」**

22.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솔'에 대한 진술을 통해 어지러운 정국에 대한 근심과 기대를, '제비'에 대한 진술을 통해 유배객의 시름을 나타내고 있다. (다)는 한양의 거처 한쪽에 있던 '소나무'와 '산림에서 자라는 소나무와 잣나무'에 대한 진술을 통해 사람의 처신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나)에서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나 '반벽 청등은 빛조차 어두워라'는 공간에 대한 묘사로 볼 수도 있으며, 이는 화자의 심정처럼 암담한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나)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에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은, 한 무제의 황후처럼 돈을 주고 시를 사서라도 자신의 마음을 임금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한탄을 담고 있다. 탐욕에 눈이 먼 이들이 득세하는 타락한 정치 현실을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개탄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남산의 많던 솔'은 대궐에 있던 많은 충직한 신하들을, '난리 뒤의 부근'은 혼란한 정치 현실 속에서 그들이 입은 화를 의미한다. 충신들을 숙청한 일을, 도끼로 나무를 베어 내는 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②'우로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는, '우로'(비와 이슬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고전 시가에서는 흔히 백성이나 신하를 향한 임금의 은혜를, 초목을 자라게 하는 '우로'에 빗대어 표현한다.)가 다시 내리기만 하면 자신도 유배에서 풀려나고 다른 충신들도 다시 대궐로 돌아와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혼란의 해소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담고 있는 시구라고 할 수 있다. ③'하늘에 해 있으니 님이 짐작 안하실까'는, 임이 하늘의 밝은 해처럼 공명정대하게 (화자 자신이 모함을 당한 것이라는) 진상을 헤아려 주지 않을까 하는 뜻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과, 그렇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다. ④'님의 터진 옷을 깁'는 행위는 신하로서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는 일을 의미하며, (임이 있는) '천문 구중에 갈 길이 아득하'다는 것은 자신의 처지로는 임금에게 가까이 갈 수조차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구는, 임금을 올바로 보필하고 싶지만 자신이 그럴 형편이 아니어서 안타까워하는 작가의 심정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고'에서 의문의 형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대문을 여는 여느 사람들과 달리 화자가 자물쇠로 침실을 굳게 잠근 상황에서 비롯되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화자가 자물쇠를 잠가 침실을 닫은 것은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므로, 이를 통해 화자의 애달픈 심정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A]에는 과장된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B]에서 과장된 표현('천 줄기 눈물은 피 되어 솟아나고')을 찾아볼 수 있다.

25.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음력으로 12월이 다 지났으니 곧 봄이 올 텐데 봄이면 너무 늦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오래지 않아 계절이 변할 것임을 환기하고 있는 시구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전후 문맥상 이 시구는, 겨울이 가기 전에 임의 겨울옷을 빨리 수선해 주고 싶으며, 봄이 되면 너무 늦어 버린다고 조바심을 내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힘겨운 시기가 곧 끝나리라는 기대와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①종일 지지배배 소리를 내는 '제비'와의 비교를 통해, '적객'인 자신의 '시름' 많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임이 '이 맹세('서해 맹산한 첫 말씀')'를 지키지 않고 버렸기에 자신이 '홀로' 떨어져 임의 '옥 같은 얼굴'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뜻이다. ④글쓴이는, 나무의 가지가 구부러지고 뒤틀린 것이 '나무의 타고난 성질' 때문인 줄 알고 던지는 물음을 제시하여, 그것이 나무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아름답고 기이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개를 통해, 나무처럼 인간도 올곧은 본성을 타고났으나 남의 환심을 사려는 아첨 때문에 올곧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글쓴이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가지들의 모습을 묘사할 뿐, 그것이 꾸밈없고 어눌하여 인(仁)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감탄하고 있지는 않다.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구부러지고 뒤틀린 가지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강의목눌'이 아니라 부정적인 '교언영색'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는 남을 모함하기 위해 소인배('쉬파리')들이 교묘히 말을 꾸며 내는 행태를, '알록달록 무늬 짜서 고운 비단 만'드는 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섬세한 비단을 짜는 일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은, 말을 교묘하게 꾸미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꾸밈없고 어눌한 태도가 인(仁)에 가깝다는 공자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에서 자신이 말재주 없고 눈치를 살필 줄 모른다(그래서 지금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한 것은, 자신이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아첨하지 않고 강직하게 살았다는 작가의 자부심을 내비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는 남의 칭찬을 구하며 살다 보면 오히려 타인에게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주자는 아첨이 타인에게 끼치는 해악을 말했으나, 거기에 더하여) 아첨이 본인에게도 해악을 끼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7.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기이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를 구부러지고 뒤틀리게 만드는 일은, 남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아첨하는 일과 대응된다. 그리고 글쓴이는 그 둘이 모두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사람은 올곧은 본성을 따르기 위해 스스로를 올바르게 깨우쳐야 한다고 했다. 나뭇가지를 구부러지게 하는 일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대응된다고 하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가지가 구부러지고 휘어지게 하려고 '사람이 조작'을 가하는 나무에서도 '새로 돋는 가지들'이 '꼿꼿이 나곤 하는' 것은, 그것들이 '위로 향하려는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다. 즉, 곧게 자라는 나무의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③글쓴이는 '곧은 본성과 거침없는 기개를 지키며 사는 이들'과 '산림에서 자라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대응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이 후자를 대할 때에 '자연히 우러러 엄숙한 마음으로 공경'한다면서 그것을 통해 '인지상정'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올곧은 사람이 올곧은 나무처럼 자연스레 '존중함', 즉 '우러러 엄숙한 마음으로 공경'함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글쓴이는 '무언가를 아낌은 그것을 천대하고 업신여기는 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남의 마음에 들려고 아첨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글쓴이는 남의 마음에 드는 것을 목표로 처신하는 것이 자신의 본성을 천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점에서도 좋지 않다고 함으로써 독자를 설득하려는 것이다.

[28 ~ 30] 현대시

➔ **연계 지문 : 박두진, 「도봉」 (수능특강 87쪽)**

➔ **윤동주, 「눈 오는 지도」**

28.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겨울 분위기를 드러내는 '함박눈'과 결부하여 화자의 정서('말 못 할 마음', '슬픈 것')를 부각하고 있다. (나)의 시·공간적 배경은 '가을 산'인데, 여기서 '가을'이 환기하는 쓸쓸한 분위기가 화자의 고독한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가), (나) 모두에서 현재형 진술이 쓰이고는 있지만, 대상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황혼'에 이어 '별과 밤'이 올 것이라는 제7연의 진술은, 이어지는 제8연의 '생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이라는 진술로 볼 때, 자신의 삶에 찾아올 변화를 기다리는 화자의 설레는 심정을 부각하는 시구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그 뒤로 이어지는 두 연에 나타난 '밤'에 대한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9연에서 '밤'은 '그대 위하여' 갖는 '긴 밤과 슬픔'으로 표현되고 있고, 마지막 연에서 '이 밤'은 '그대'가 '나도 모르는/어느 마을에서 쉬'고 있는, 즉 기다림의 안타까운 시간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7연의 '황혼과 함께' '별과 밤'이 올 것이라는 진술은, 화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짙어지는 어둠처럼 자신의 고독과 슬픔이 심화될 것임을 알고 이를 드러내는 시구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가)에서 '함박눈'이 내리는 날 '순이'가 떠난 후, 화자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을 돌아보며 '벽과 천정'도 눈처럼 하얗다고 느끼고 '방 안에까지 눈이 나리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 속에서 이별의 슬픔과 결부되고 있는 눈의 흰 색채 이미지를 통해 '순이'의 부재로 인해 쓸쓸하고 슬픈 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③(가)에서 화자는 대상이 떠나는 날 내린 '눈'이 대상을 찾아 나서는 '내 마음' 속에도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일 년 내내 눈이 내릴 것이라는 '내 마음'은 상상의 공간이고, 화자는 그 상상의 공간 속 풍경을 통해 대상을 향한 자신의 그리움이 변함없을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보기>와 결부해 볼 때, 이는 상상 속 풍경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 경우에 해당한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울림'이 '헛되이/빈 골골을 되돌아'오는 것은, 바로 앞 연의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와 연결하여 이해할 때, 화자의 외침이 주변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는 공간에서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모습이다. 이는 화자의 고독한 처지와 심정을 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생님의 안내와 결부하여 (나) 시를 이해할 경우에도 ㉡은 민족 전체가 합심하여 광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②(가)를 선생님의 안내와 결부해 이해할 경우, ㉠의 '잃어버린 역사처럼' 가 버린 '너'는 빼앗긴 조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서 '네가 가는 곳을 몰라'서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라고 한 것은, 조국을 되찾을 날을 갈망하면서도 광복의 날이 올지 막막해하는 시인의 내면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④㉣에서 화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랑'은 '그대'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선생님의 안내에 제시된 시의 창작 상황을 고려하여 '그대'를 '조국'이라고 본다면, ㉣은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품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고 마는 엄혹한 현실을 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이다. ⑤ ㉤은 '그대'가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대체 어디서 쉬고 있기에 이렇게 늦느냐는 심정을 내포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일제 강점기라는 창작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쉽게 광복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시인의 안타까움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에는 '그대'가 어딘가에서 쉬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오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여기에는 비록 늦지만 광복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1 ~ 34]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소현성록」(수능특강 138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집에 돌아온 승상은 이홍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뒤, 이홍을 치던 종들을 결박하여 꿇리고 화 부인의 거처인 녹운당 시녀들을 잡아낸 다음, 방약무인하게 행동한 노비 등에게 곤장을 쳐서 내치는 처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홍을 불러 위로하는 말을 한다.

[오답풀이] ① 화 부인은 시어머니인 양 부인을 방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상이 나가 있고 또 풍경이 빛나므로' '후원과 외당을 둘러보고자' 이홍에게 중문을 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② 이홍은 중문 열쇠를 달라는 화 부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어르신께서 오늘 저녁에 돌아오실 것이니, 오시거든 열쇠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승상이 언제 귀가할지 모른다며 거절한 것은 아니다. ③ '양 부인이 내당의 일을 총괄하나 승상이 장성한 후로 외당의 일은 알지 못하니'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이홍을 주부에 임명한 뒤부터 양 부인이 외당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금하였다는 것은 지문과 부합하지 않는다.

32.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곧이곧대로 다 고하여 죄를 더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승상이 '곤장으로 신문하기 전에 아뢰어라.'라고 위협한 점을 고려할 때, 곤장을 맞지 않으려고 있는 대로 다 고해 바쳤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어서 죄가 없다는 변명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④ ㉢ 앞에서 승상은 화를 내며 이홍을 치던 종들을 결박하여 꿇리고 있고, ㉢ 뒤에서 집안사람들은 승상의 노여움에 두려워 떨고 있다. 따라서 ㉢은 승상이 격하게 화를 내어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서사적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이홍은, 상공의 첫째 부인이 외당과 후원을 구경하려고 열쇠를 달라고 했다는 점, 자신이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없어 여차여차 아뢰었다는 점, 부인이 진노하여 자신을 벌하려 하였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사태가 벌어진 경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자신은 충정을 다하고자 함이었지 방자하려 함이 아니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진의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자신의 진의를 밝히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가 억울하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나마 '신의 죄가 중하오나'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상공의 어여삐 여기심을 입어 집안일을 맡았으니' 열심히 일해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은혜를 갚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홍이 마음에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여겨 화 부인의 명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자 승상이 '놀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홍에 대해서가 아니라 화 부인에 대해서이다. 평소 화 부인이 방자한데다가 '암탉이 울어 새벽 알림을 맡는 일이 있을까 염려'하던 중 염려되던 일이 현실화되자 놀란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이홍이 주장하는 직분의 윤리에 대한 승상의 부정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② '네가 우리 집의 가신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대를 자신의 아랫사람으로 여긴다는 뜻이므로, 이는 위계질서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화 부인이 이처럼 위계질서의 윤리를 내세워 자신의 명령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면, 이홍은 자신이 승상에 의해 집안일을 맡았기 때문에 승상의 허락이 없으면 천자가 오더라도 문을 열지 못한다고 맞서는데, 이는 곧 직분의 윤리를 내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 위계질서의 윤리와 직분의 윤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⑤ 승상은 가부장제의 윤리에 충실하려는 인물이다. 그런데 자신이 '밝지 못하여 부인네의 호령이 그대 몸에 미쳤'다는 것은 자기 집안에서 가부장제 윤리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실토하는 말이다. 그리고 스스로 이를 지적하며 이홍에게 '어찌 부끄럽지 않으리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를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즉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집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라 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36쪽**

35.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정자석과 비녀석의 역할에 대해 '실제로 한 연구팀이 ~ 실험을 했는데'라고 실험 결과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② '여러분도 ~ 관심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라고 발표 내용과 관련된 권유를 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③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돌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라고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⑤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의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발표에 나타난 시각 자료 활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는 ㉡을 보여 준 다음 '아래보다 위쪽이 좁고 내부의 흙과 자갈로 인해'라고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위치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답풀이] ①, ② 발표자는 ㉠에서 <자료 1>을 활용하여 첨성대 아래 땅속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발표자는 ㉢에서 <자료 3>을 활용하여 정자석과 비녀석의 모습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발표 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보고 청중의 질문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발표자의 답변을 보면 과거에 '규모 6.5로 추정되는 지진을 겪었고', 현대에 들어서도 '큰 지진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의 질문은 '얼마나 강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87쪽**

38. [출제의도]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유진'이 회의 참여자들 간의 의견 대립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이번 회의에서는 ~ 이야기해 보자.'라고 회의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안내하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③ '교지에 실을 글에 ~ 부적절한 것 같아.'라고 회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이 논의의 초점에서 벗어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④ '그러면 ~ 의견이 모인 거지?'라고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한 후 '이제 ~ 이야기해 볼까?'라며 다음 논의로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⑤ '그러면 ~ 쓰는 걸로 하자.'라고 역할을 배분하며 회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특정 발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동우'는 봄꽃 축제에 대해 소개하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회의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지는 않다.

40. [출제의도] 발화 상황과 표현 전략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민찬'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선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며 '어깨를 두드'리는 몸짓의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선희'를 격려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자신감이 부족한 상대에게 용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어조나 목소리 크기의 변화를 주는 등의 준언어적 표현이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41. [출제의도] 회의 내용과 초고를 적절하게 연결지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약령시 축제가 처음 열렸던 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42. [출제의도] 초고의 끝부분을 적절하게 이어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과거 약령시의 모습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간단한 한방 진료도 받을 수 있다'라고 3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후 '○○ 약령시 축제에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축제 참여를 권유하고 있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43 ~ 45] 작문

43. [출제의도] 글을 작성할 때 활용된 글쓰기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12쪽

(가)에 따르면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다. (나)의 첫째 문단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 중 일부는 이미 선거권을 지니고 있거나 그렇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지 않은 학생들은 곧 지니게 될 것이라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⑤가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보기>의 관점에서 글의 일부를 적절히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26쪽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은 투표율이나 득표율로만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였다는 실질적 민의가 반영되어 선출된 후보야말로 유권자를 진정으로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등은 아무에게나 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표에는 민의가 담겼다고 볼 수 없다. 즉, 의무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선거권을 행사한다. ②(나)에 따르면 의무 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투표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유권자 대비 득표율 역시 상승한다. 이 사실은 대표성을 투표율과 득표율로만 가늠하는 것으로 <보기>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실질적 민의와는 관련이 없다. ④ <보기>의 관점도 의무 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투표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⑤ <보기>의 관점만으로 투표에 반영되는 실질적 민의와 공정한 정책 실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45. [출제의도]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 중 글을 수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23쪽

학생은 <보기>의 두 번째 문장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투표 용지를 ~ 투표 독려 캠페인 등'이라는,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구체적인 예를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정확한 액수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문장에 쓰인 서술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8쪽

㉠에서는 형용사 '바쁘다'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에서는 동사 '배웠다'가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 ㉣은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다. 서술절을 안은 문장에서는 앞에 나오는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가 서술절에 해당한다. ㉢에서 서술절 '마음씨가 착하다'의 '착하다'는 '마음씨가'에 대한 서술의 기능을 담당하고, 서술절 '마음씨가 착하다'는 주어 '하영이는'에 대한 서술의 기능을 담당한다.

[오답풀이] ① ㉢의 '이것은 책이다.'에서 '책이다'는 체언과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로 기능한다. '체언+서술격 조사'의 구성은 두 단어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며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6. [출제의도]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61쪽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본용언 '좋다'와 보조 용언 '성싶다'가 결합한 '좋을 성싶다', 본용언 '먹다'와 보조 용언 '버렸다'가 결합한 '먹어 버렸다'는 붙여 쓸 수 있다.

[오답풀이] ①'매달아 놓았다'는 본용언 '매달다'가 합성 동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을 띄어 써야 한다. ⑤ 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 의존 명사와 용언의 구성이 되므로 '올', '듯도', '하다'를 모두 띄어 써야 한다. '읽어는 보았다'는 본용언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써야 한다.

37. [출제의도] 음운 변동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95쪽

'값하다[가파다]'에서는 종성의 'ㅅ'이 탈락된 후 남은 'ㅂ'과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ㅎ'이 'ㅍ'으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엷홅이[여풀치]'에서는 종성의 'ㅍ'이 'ㅂ'으로 교체된 후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ㅎ'과 만나 'ㅍ'으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또한, 종성의 'ㅌ'이 'ㅣ'와 만나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도 일어났다. ①에서 '음절의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진술은 '값하다'만 해당한다.

[오답풀이] ③'곁낫질[견낟찔]'에서는 파열음의 거센소리 'ㅌ'이 파열음의 예사소리 'ㄷ'으로 교체되었다. '비늘잎[비늘립]'에서는 파열음의 거센소리 'ㅍ'이 파열음의 예사소리 'ㅂ'으로 교체되었다. ⑤'비늘잎[비늘립]'에서는 'ㄴ'이 첨가된 후 'ㄴ'은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교체되었다. 또한 종성의 'ㅍ'은 'ㅂ'으로 교체되었다.

38. [출제의도]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03쪽

간접 인용에는 직접 인용에 쓰인 '나(내)' 대신 '그'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 '자기'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직접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므로 간접 인용에서는 어제 시점의 내일인 '오늘'이 되어야 한다. 간접 인용은 화자의 입장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한 것이므로 '너희 집'은 '우리 집'이, '가겠다고'는 '오겠다고'가 되어야 한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37쪽

'아까운 뜻이 있느냐?'와 '이 딸이 너희 종인가?'는 판정 의문문에, '네가 어떤 밥을 구하느냐?'와 '아들이 어디에서 오는가?'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판정 의문문에는 '-아/어' 계열의 종결 어미나 보조사 '가/아가', 설명 의문문에는 '-오' 계열의 종결 어미나 보조사 '고/오'가 쓰였다. 단, '네가 어떤 밥을 구하느냐?'는 주어가 2인칭이므로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 어미 '-ㄴ다'가 쓰였다.

[40 ~ 43]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45쪽

40. [출제의도]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 활용된 장면들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장면3]에서 뉴스와 관련된 인포그래픽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포그래픽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보를 시청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41. [출제의도]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접속 부사 '하지만'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 앞의 내용이 ㉢의 원인은 아니다.

42. [출제의도] 텔레비전 방송 뉴스를 시청한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시청자 2는 뉴스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기대 효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청자 5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으로 재활용률은 높일 수 있지만 컵 반환 업무가 추가되어 부담이 생기는데 이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다. 따라서 시청자 2와 시청자 5는 뉴스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시청자 1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시청자 4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시청자 3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시청자 3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43. [출제의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매체 수용자는 댓글을 통해 보증금의 반환 방식이 어떠한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매체 생산자는 현금과 계좌 이체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매체 수용자는 댓글을 이용하여 매체 생산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4 ~ 45] 매체

44. [출제의도] 인터넷 카페 매체에 나타난 표현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91쪽

(가)에서 '사진에서 보듯이 ~ 이런 음료는 피하는 게 좋겠죠?'라고 언급한 부분과 함께 삽입된 고카페인 함유 음료 캔의 일부분을 찍은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카페인 과잉 섭취 시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과 카페인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겠다는 내용을 글자의 크기와 형태를 달리하여 강조하고 있다. ③(가)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은 청소년의 카페인 1일 최대 섭취 권고량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⑤ 해시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카페에 올라와 있는 '카페인 과잉 섭취 문제를 다룬 다른 게시물들'을 확인해 보도록 안내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 생산에 반영된 학생의 제작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79쪽

'슬라이드 3'에서 (가)에서 제시한 커피 한 잔당 카페인 함유량 이외에 에너지 음료 한 캔, 커피우유 한 팩에 포함된 카페인 함유량을 추가로 조사하여 삽입한 것은 맞지만, 이를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표 형태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